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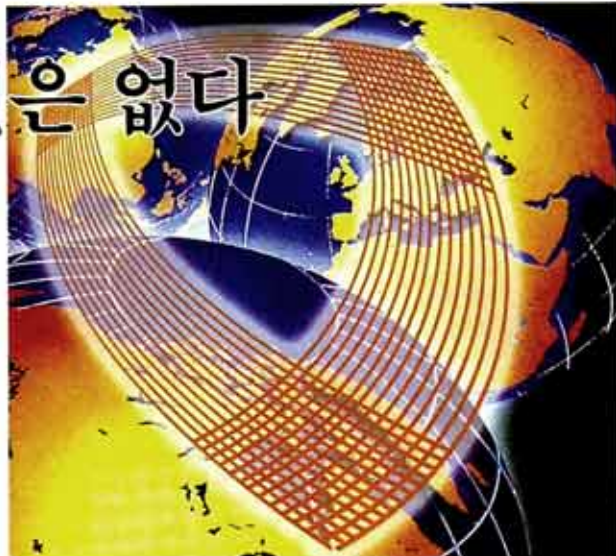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링크'

A-L 바라바시 지음/강병남·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 1만6천원

『링크』는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하는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이론을 설명한 책이다. 그 이론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권위자인 알버트 라울로 바라바시가 저술했으며, 이미 미국의 사이언스지를 비롯한 과학 전문지부터 뉴욕타임즈, 다위슨포스트 등의 대중매체까지 앞 다퉈서 리뷰했다. 바라바시는 1974년 생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중신교수로 노르웨이대학 물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잇닿아 있다.

세상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염세계'

네트워크 과학이론...상생의 길 제시

그가 주장한 네트워크 과학은 복잡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요구하고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세계관이자 방법론이다. 이 책은 우리의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기본구조, 곧 네트워크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겨나며 진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유행과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는지, 97년 아이엘에프 사태가 전체 경제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세포안의 네트워크를 연구하여 어떻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네트워크의 연결구조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세상을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쉽게 풀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교의 가르침에도 일맥상통한다. 『화염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신비한 인드라망으로 그리고 있다. 인드라망은 '인드라'라는 신이 사는 궁전의 그물장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그 하나 하나의 그물코마다 크고 작은 보석이 달려 여러 형태를 이루고 있다. 빛의 반사도 일체와 보석들은 반사되는 모든 모습을 빠짐없이 담고 서로를 반사해 낸다. 인드라망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편의 보석이 너무 밝아 다른 보석의 빛을 상실키워 균형을 잃게 하였을

때 인드라망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염의 세계다.

바라바시는 "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경제, 세포, 인터넷 등과 같이 매우 상이한 시스템들간의 놀라운 유사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면서 "화염세계라는 상자에서 벗어나서 다가오고 있는 과학혁명-새로운 네트워크의 과학-을 한 링크 한 링크씩 탐색해 가도록 자극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세상은 그렇다면 중증무진한 화염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라바시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과학 이론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의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아닐까 싶다.

이은자 기자 ees@buddhania.com

불우했던 천재화가들의 삶과 죽음



"병상일기-영원한 퇴원-죽음. 다가오는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다. 우리가 죽음을 갖는다 해도 죽음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구본웅에 이어 한국의 로트렉으로 불린 김주 화가 손상기(1949-1999). 그는 짧았지만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며 유서 대신 이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 시냇물로 요절했다. 요절(夭折), 단어의 뉘앙스에서 무언가를 수 없는 고통의 느낌을 갖게 하는 '요절'은 말 그대로 '살의 허리' 뜰에서 맞은 죽음을 이른다.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만으로 운명적인 단어인 요절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요절'

조용훈 지음
효형출판 / 1만2천원

열정과 광기, 사랑과 고독으로 불태운 예술혼

요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타인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요절』을 읽어 보라고 권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나온 『요절』은 과히 현재적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열두명 화가들의 불꽃같은 삶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부제가 '죽음은 그들을 유혹했을까' 아니, 책 속의 모든 이야기가 그들의 삶과 사랑, 예술적 저항을 거쳐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책을 읽어 가다보면 범인의 눈과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들은, 예술가들은, 그토록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처우 불가능한 고독에 감금당하고, 스스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광기와 예술혼 때문에,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비굴한 삶을 택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나라 잃은 설움을 울부짖는 듯한 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종섭(1916-1956). 그는 동방의 루오로 호평 받던 때에 야마모토 마사코 라는 한 일본 여성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재능을 선사하고 잔인하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상투인 것들." 이 책의 저자인 시인 조용훈(홍주교육대 교수)은 요절한 그들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은자 기자

日의 역사왜곡 치밀하게 해부



최근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고발한 번역서가 출간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894년, 왕궁을 점령하라!』,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의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된 경복궁 점령사건의 진상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 책은 구체적인 전투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던 경복궁 점령사건의 진상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저자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궁점령사건'을 통해 일본내 '황국사관(皇國史觀)'의 허구성을 고발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 사건을 전후해 언론 통제를 가했으며, 심지어는 '구미인 이야기'로 조작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는 일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청일전쟁을 비롯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천황의 위공(威功)과 결부되어 한층 높아져 교육의 장에서 강요되었다. 학교 교육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허구를 바탕으로 '조작된 이야기'만이 '국민적 상식'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1894년, 경복궁을 정복하라'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박명수 옮김
푸른역사/1만원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은 이어 한민족의 자존감을 건파하는 데로 이어졌다. 저자가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타타로(司馬遼太郎)의 『고개 위의 구름』(우리말로는 『언덕위의 구름』)으로 번역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코지마 노부후의 『오야마 이으로』 등을 비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일본군에게 진압되더라도 조선의 항일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멈추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 점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아예

'경복궁 점령사건' 통해 황국사관 비판 정확한 사료 바탕 역사 조작 논증

1894년 봄 갑오농민전쟁의 진압을 위해 파병된 청 일양국 군대는, 농민군과 조선 정부 사이의 전주화약 체결로 주둔 명분이 없어졌다. 이때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임을 강조, 조선에 청군을 구축(驅逐)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조선정부에서 이를 거부하자, 당시 오토리 공사(公使)의 뜻에 따라 모토노 이치로 참사관은 7월 20일 오후 1시 제5사단 훈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를 만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7월 23일 왕궁 점령을 단행하였다. 왕궁 점령 과정에서 조선 병사의 저항은 일본군의 무력 앞에 좌절되고 결국 국왕은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이때 고종의 부친 이하응이 궁궐로 입성, 신내각을 조직하고 일본측의 요구대로 청군 구축을 요구하는 조서를 내려보냈다.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일 양국 병사의 우연한 충돌'에 따라 우발적으로

관심 밖의 일로 돌렸다.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못한 조선민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역사의 조작이었다.

일본에서 역사가 조작되고 왜곡되는 허구성을 고발한 이 책은 이처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일본의 역사 왜곡이 비단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청일전쟁 이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사소한 문제지만 대중서인 점을 감안,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왕궁점령사건의 일자를 양력을 채용해 1894년 7월 23일로 서술하고 있으나, 당시 우리의 경우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해 6월 21일로 이해하고 있다. 학술서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대중서인 점을 감안해 주황이라도 달았더라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근호 / 국민대 강사, 한국사 전공

『1894,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청일전쟁(1894-1895) 개전 전 즈음하여 일어난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 사건이 뚜렷한 목적과 주도명분이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일본의 기록을 통해 실증한 책이다. 그리고 그 같은 역사 위조가 결코 일시적 발상에서가 아니라 근대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논증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전신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전장을 되찾게 되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장건강비법 약초기법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황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걷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는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숙면을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걸러가 됩니다. 즉, 인체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대교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방영

기독교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명동 116
- ◆대상: 만 65세 이상 노년층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
- ◆경원: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도(약 7평) 24실(각실 인트론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영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대부치남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음을 자광원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년층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영종 시까지 평생토록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본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명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